

AUTHOR 허순길

TITLE 개혁교회 국제협의회 창립을 보다

IN 월간고신  
(8, 1983): 30-33.

# 개혁교회국제협의회 창립을 보다.



허 순 길박사  
현재 호주에서 활동중

19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화란의 Groningen에서 세계 9개 개혁주의 교파교회 대표들이 모여 “개혁교회 국제협의회”를 창립시켰다. 이 창립총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큰 규모는 아니었으나, 현재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인 심각성을 생각할 때, 역사적인 한 사건이었다.

신학의 자유화,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대한 무관심, 생활의 세속화 등으로 많은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 가는 요즘,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파수하려는 신실한 교회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신앙의 단일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참된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위한 서로의 협력을 다지는 뜻있는 모임이었다.

## 창립동기

1960년대부터 호주 자유 개혁교회 총회가 세계개혁주의 자매교회간의 협의체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자매교회에 제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화란개혁교회(자유개혁파)가 그 뜻을 받아 들여, 1981년 총회가 “개혁교회국제협의회” 창립을 위해 자매교파교회와 잠정적 교회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교파교회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1월에 초청장 발송)

특별히 이 협의회 창립의 필요성은, 현재 개혁주의 노선을 지키는 교회들의 세계적인 협의체가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현재 개혁주의 교회에 세계적인 협의체가 두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1875년에 창립된 “개혁주의세계연맹”(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이고, 또 하나는 1946년에 창립된 “개혁주의-에큐메니칼총회”(The

지난해 10월 11일에 개혁교회 국제협의회 창립총회의 호주 개혁교회의 대표로 참석한 제가 그총회의 소개를 위해 이 글을 보냅니다. 이는 개혁주의 세계에 한 큰 사건이었기에 한국교회가 그내용을 알고 적극 참여 협력하는 것이 유익한줄 생각 됩니다.

- 필자 주 -

Reformed Ecumenical Synod)이다. 전자는 일찍부터 자유주의신학을 용납하는 각종교파교회를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이 조직체의 지도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후자인 R.E.S.는 개혁교회세계연맹(W.A.R.C)이 개혁주의 노선을 지키지 못하자 역사적인 개혁주의 교회간의 참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그러나, 그 후, 불행히도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파교회를 받아들임으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었다.

1969년에 이 총회의 창립회원교회의 주도적인 화란개혁교회(총회파)까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자 R.E.S.의 노선의 성격은 완전히 흐려지게 되었다. 이 총회가 “W.C.C.의 회원이 되는 것은 R.E.S.의 회원이 되는 것과 상치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나(1976년 케이프타운 총회.)이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회원교회 중에(특히 화란총회파교회)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기사의 역사정부인, 성경무오설 부인, 동성연애의 공식인정등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가 생기고 있으나, R.E.S.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들은 더이상 R.E.S.에 머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차츰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예로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와 에이레의 북음장로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여건이 급변해 ‘개혁교회 국제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였다.

## 창립총회

창립총회가 모이기 전날 밤, 라파야개혁교회(Rafajah Kerk)에서, 9개 교파교회 대표들과 수백명의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기

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는 호주에서 온 K.Bruning 목사의 말씀 증거와, 에이레에서 온 D.W.H.Thomas 목사의 특별기도로 진행되었다.

다음날 10월 26일 회의가 시작되어, 화란개혁교회측의 제의로 창립총회의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회장 : G-van Rongen (화란)

부회장 : K.Bruning (호주)

서기 : M.van Beveren (캐나다)

-대표를 파송한 교회-

1. 캐나다 개혁교회
2. 에이레 북음장로교회
3.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4. 호주 자유개혁교회
5. 남아 자유개혁교회
6. 한국 장로교회
7. 동 수바/사부 (East-Sumba/Savu, 인도네시아) 개혁교회
8. 대만 개혁장로교회
9. 화란 개혁교회

스리랑카 개혁교회, 일본 개혁교회, 남아 개혁교회 등에도 초청을 하였으나, 각기 특수한 형편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창립총회의 주요과제는 헌장(Constitution)과 규칙(Rules)을 초안하고 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소집교회인 화란개혁교회측에서 마련한 글들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제시된 글을 캄판신학교 교회학 교수인 L. Doekes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의 조화와 다양성”, 교회사교수 D.Deddens의 “은사와 사명으로서의 신앙의 일치와 다양한 교회정치 형태에 대한 의의”, M.K.Drost 교수의 “80년대 개혁주의 선교과제”, P.V on Gulp 목사의 “탁교회와의 접촉과 규칙

에 대한 소견" 등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교회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참된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위해,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정치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와 토론의 필요성을 모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현장

이 창립 총회가 채택한 현장(요약)

#### \* 1조-명칭 -

본 협의회 명칭은 "개혁교회 국제협의회"라 칭한다.

#### \* 2조-기초 -

본 협의회 기초는 개혁교회의 일치신조(벨직신경, 하이델베그 교리문답, 돌트신경)와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고백된 대로의 신구약 성경이다.

#### \* 3조-목적 -

본 협의회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일치성을 표현하고 촉진한다.
2. 회원교회들 간에 완전한 교회 친교 관계를 갖도록 격려한다.
3. 선교사명과 다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교회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4. 회원교회가 당면한 공동문제와 난제들을 연구하고 이 문제들에 관하여 친거한다.
5. 세계에 개혁주의 증거를 제시한다.

#### \* 4조-회원권 -

1. 다음 교회들을 회원으로 받아 들인다.
  - ① 기초에 진술된 신앙고백 표준서들을 굳게 지키고 이에 신실한 교회
  - ② 교리의 ㉠ 신앙고백 표준서 ㉡ 교회법 ㉢ 직분자의 서약서명서 등을 제시하는 교회
2. 가입신청을 한 교회는 회원교회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으므로 가입

이 된다.

3. 본 협의회 가입 할 교회는 W.C.C.나 본 협의회 기본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려되는 목적과 실행을 가진 어느 조직체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 \* 5조-권위 (Authority)

본 협의회 결론(결정)은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다.

### 규칙

본 창립총회가 채택한 규칙 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년마다 "협의회"를 가진다. 협의회때 마다 다음 협의회를 소집할 교회, 장소, 날짜들을 결정한다. 회장, 부회장, 회록 임의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를 두어 통신서기의 일을 감독하고 협의회가 모일 때까지 수행한 일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모든 회원 교회는 두 명의 대표를 파송하고 그의 다른 두명의 자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외에 합의된 본 것은, 제 1차 "개혁교회 국제 협의회"를 1985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를 소집교회로 정한 것이다. 제 1차 협의회까지의 임시 통신서기로 캐나다 개혁교회의 안건들은 대부분 회원 교회들이 계의한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교리 정치면의 조화와 차이점을 더욱 연구 토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일치한 공동노선을 탐색할 것이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혁교회국제협의회 전망

이 협의회가 창립됨으로, 세계의 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신앙의 일치성을 체험하고 촉진하게 될 조직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창립총회에 우리 한국교회와 오

랜 관계를 맺어오던 교회들, 비정통 장로교회(O.P.C.)남아의 개혁교회들이 참석 못했다. 그 이유중 하나가 현재 R.E.S.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이미 밝힌대로 현재 R.E.S.가 개혁주의 기반과 방향을 잃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신실한 교회들이 차츰 이 창립교회의 "협의회"에 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 한국교회(교신)도 이 역사적인 창립총회에 이근삼 박사를 대표로 파송했다. 이제 한국교회도 국제적인 교회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신앙적 신학적인 면에서 공헌할만큼 성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116:12)"하는 시편기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계속에서 주님의 교회건설을 위한 봉사의 직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날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날 줄 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국내교회 한계를 넘어서 세계속에 주님의 참된 교회 건설에 대한 사명을 의식하고 국제교회 협의회에서 적극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을 택해서 파송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 총회가 개혁주의 국제교회 관계 문제나 개혁교회 국제 협의회(I.C.C.C.)의 참여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유능한 분들을 교회 대표로 파송하여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창간호부터 금년 2월호까지 6개월치를 한권의 책으로 만든 합본호 세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과월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나 논문자료로서 오래 간직하실 분,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친척들에게 귀한 선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부 한정판으로 예쁜 금박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편집부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합본호 1권(81년 7월창간호~82년 1월호)	6,000원
합본호 2권(82년 2월호~8월호)	6,000원
합본호 3권(82년 9월호~83년 2월호)	6,000원

